

2019~2023년 학생배치계획 수립

전북교육청, 향후 5년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감축 추진 내년 학급당 평균학생수 초 20.0명·중 24.7명·고 24.1명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도내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변화추이, 교원수급 및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반영한 '2019~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5년간 학생 수 및 학급 수 전망을 담고 있다. 학생배치계획을 토대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방안과 인사, 예산 등의 각종 교육정책 수립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지역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2019학년도 전체학교의 학생 수는 올해 21만 819명 보다 6,956명이 감소된 20만 3863명이며, 5년 후인 2023학년도에는 18만6467명으로 올해 대비 2만 4352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OECD 상위수준 학급당 학생수에 맞춰 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흑룡피(2012년생)가 입학하는 2019년에는 올해 대비 학생 수 560명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9만8166명이나 2020년부터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중학교는 2020년부터 학생 수가 525명이 늘어나는데 이는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이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로 풀이된다. 반면 고등학교는 2022년까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교는 2019학년도 학급당 학생수는 2018학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동지역을 기준으로 26명까지 최대 3명을 낮출 예정이다. 중학교는 2019학년도 학생수 감소 대비 학급당 학생수를 29명에서 28명으로 1명 정도 낮출 예

정이며, 황금돼지띠가 입학하는 2020학년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당분간 28명으로 동결시킬 방침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9학년도 학생수 감소 대비 평준화고등학교 전 주지역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에서 28명으로 2명 낮추고 2023년까지 26명으로 감축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학급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업 환경 조성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태봉초등학교 단체사진.

완주 태봉초 생태체험 프로젝트

학생들이 직접 쓴 '우리학교생태도감' 발간

완주군 구이면의 태봉초등학교(교장 김경자)는 학생들이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며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젝트(우리학교 생태도감 만들기, 나무 팻말 만들기, 연못 꾸미기 등)를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 활동에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1학기에 태봉초등학교 학생들이 4개의 모둠으로 나뉘어 ('하모니카'·'하너', '모두', '유니', '키인드') 학교·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전문가들과 함께 총 18시간 동안 모둠별로 학교 정원의 식물과 곤충들을 관찰하였는데, 학생들은 직접 관찰하고 조사한 식물과 곤충을 설명하는 글을 쓰고 세밀화를 정성껏 그리는 등 열의를 다해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노력 끝에 그 결실을 담은 소중한 '우리학교 생태도감'을 발간하게 되었다.

'우리학교 생태도감'은 '꽃과 풀', '나무', '곤충'의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16가지, 30가지, 7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도감에는 오로지 태봉초등학교에서 자라고 살고 있는 식물과 곤충이 기록되어 있고,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그려 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자연에 대한 학생들의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정원을 관찰함으로써 정원의 식물과 곤충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관찰하고 기록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소중히 하는 태도를 길렀으며,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애교심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자신들이 직접 책을 만들고 팻말을 설치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한 성취감을 맛보았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수의대, '동물의료봉사'로 뭉쳤다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물 의료봉사팀을 구성해 화제다.

전북대 수의대는 지난달 27일 박철 교수 등 교수 3명과 수의사 5명, 그리고 학부생 24명으로 구성된 동물 의료봉사팀 '애니벌룬(AniVolun)'을 만들어 본격 동물의료봉사에 나섰다.

이들은 관련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 진료에 힘써오다 최근 유기견이나 유기묘 등 동물과 관련한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박철 교수의 지도 아래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에서 애니벌룬은 보호소에 머무는 유기견들의 중성화수술과 피부병 치료, 전염병 진단, 심장사상충 감염진단 등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이날 봉사활동을 통해 암컷 6마리, 수컷 11마리의 유기견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실시하는 한편 이 동식 심초음파 장치를 활용해 7마리에서 관막질환, 부정맥 등 심장병을 진단했다. 심장사상충 검사에서 8마리가 양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애니벌룬 팀장을 맡은 박철 교수는 "향후 심전도, 혈액분석기 등 포터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의료봉사팀 단체사진.

진단기기를 보완하고, 유기묘에 대한 봉사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수의사로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자긍심을 느낀다"며 교수진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자체감사의 투명성 확보·교육정책 변화 유도 기대"

시민감사관 위촉·협의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8일 제4기 시민감사관 위촉식과 협의회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시민감사관의 제3기 임기가 오는 9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제4기 시민감사관 7명을 위촉했다. 시민감사관의 자격 요건은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사람,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사람으로 임기는 10월부터 2년이며 1회 중임 가능하다.

시민감사관은 1년에 두 차례, 각 10일씩 실시감사를 실시하며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시민감사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교육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 시민감사관 협의회에서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실시감사 일정 및 감사대상 선정 등의 안건을 다뤘다.

시민감사관은 감사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의견서를 통보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의견서 접수 후 1개월 내에 감사 결과 의견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은 시설공사 매뉴얼 개선, 학교급식, 학교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고 교육정책의 제도 개선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해 왔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8일 제4기 시민감사관 위촉식과 협의회를 진행했다.

전북교육청, 학습더딤학생 기초학력 향상 특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교원의 학습더딤학생 지도 전문성과 실천력 향상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학습더딤학생 지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지난달 28일 전북교육문화회관 1층 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기초학력 블렌디드 연수(원격연수+독서+특강)에 참여하고 있는 교원들 뿐만 아니라 학습더딤학생 특성 이해와 지도에 관심이 있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까지 참가폭을 넓히면서 6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특강 강사인 전 명지병원 정신건강 의학과 교수이자 '성장학교 별' 교장인 김현수 교수는 '공부상처' '무기력한 아이들' '교사상처' 등 교사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다수의 책의 저자이다.

'배움으로부터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교실 만들기'라는 주제의 이번 특강을 통해, 많은 교원들이 공부로 인해 상처 받은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치유해 나가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장은성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